



2013대장경세계문화축전  
주행사장 조감도



대장경 천년관

세계문화유산을 보존·전송하기 위한 노력은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대장경 천년관은 21C 새로운 문화콘텐츠, 살아있는 대장경이라는 주제로 구성되어 박제화된 문화유산이 아니라 살아 있는 21세기 대장경으로서 그 가치를 느껴 볼 수 있다.



입장권 안내 (사전예매 시 할인 혜택을 드립니다)

구분	대상	요금표	
		사전예매	현장판매
보통권	성인	8,000원	10,000원
	청소년	6,000원	8,000원
	어린이	4,000원	6,000원
단체할인권 (20인이상)	성인	6,000원	8,000원
	청소년	4,000원	6,000원
	어린이	3,000원	4,000원

※단체관람객에 대해서는 구입매수에 따라 5%~45%까지 유치보상금이 지급됩니다.

- 입장권 소지자 혜택  
축전기간 중 합천군 소재 해인사, 합천박물관, 오도산자연휴양림, 영상테마파크, 황매산 무료 입장이 가능합니다.
- 티켓문의 | 대장경 조직위원회 055) 211-6272~6278  
티켓링크 www.ticketlink.co.kr (1588-7890)
- 공식후원은행 | NH농협 / 경남은행



주행사장 찾아 오시는길



(재)대장경세계문화축전 조직위원회  
Tripitaka Korea Festival Organizing Committee  
Tel. 055-211-6251 Fax. 055-211-6259  
http://www.tripitaka-festival.com

2013  
대장경  
세계문화축전



천년을 이어온  
고려인의 승결

2013.9.27~11.10(45일간)  
대장경 기록문화테마파크, 해인사 등 경남 일원

주최 : 경상남도 합천군 해인사  
주관 : (재)대장경세계문화축전 조직위원회

해인사  
소리길



흥류동 계곡길 따라가며, 마음의 소리를 듣다

천년의 고고한 세월을 담은 이길은 '해인사소리길' 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태어나 세파에 시달린 여행객을 자연의 품속으로 안내한다. 길은 '대장경세계문화축전' 행사장인 아천리에서 해인사까지 6km 남짓 이어진다. 수백년 된 송림 숲에서 뿜어나오는 신선한 '공기'와 웅장한 바위를 휘감아도는 청아한 물길과 폭포, 산새 소리와 해인사의 풍경소리로 마음을 씻어내고 깊은 사색을 하기에 더없이 좋은 길이다.

우리 민족의 위대한 문화유산이자  
동아시아 문명의 보고,  
국보 제32호, 유네스코 지정 세계기록유산

고려대장경  
단 한 자의 빠짐도  
틀림도 없는 5천 2백여 만자  
81,258장의 경전 속에  
천 년의 역사와 미래가 담겨 있습니다.

인류 지성의 위대한 상징이자  
아시아 문화의 자부심  
고려대장경!  
「2013 대장경세계문화축전」에서  
그 찬란한 역사와 미래를 함께 하십시오.



자연을 이기려 하지 않고 모든 것을 말김으로써 자연  
그 자체가 될 수 있었던 팔만대장경판  
그 아름다운 지혜로 천 년의 시간을 뛰어넘는다.

지(智) · 통(通) · 재(才) · 연(緣) · 희(喜) · 애(愛)

지혜와 슬기로 맺은 인연과 사랑

지혜(智)

대장경 천년관 : 대장경의 가치와 의미를 이해

소통(通)

천년의 광장, 다양한 체험프로그램과 창조적 놀이의 소통의 장

창조와 발견(才)

대장경의 의미를 확장시킨 문자, 활자, 의사소통 등의 기원과 진화

동행과 화합(緣)

세계인의 화합, 인간 · 자연에너지의 공존과 마음의 치유

자애(愛)

소리길 체험, 남을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는 마음

열정(喜)

문화예술의 창조적 콘텐츠, 공연프로그램, 특별 이벤트



사시사철 창문이 개방되어 있어도 장경관전에는 수백  
년 동안 날짐승이 침범하거나 쥐 한 마리가 들락거리는  
일조차 없었다. 너무 단순해서 더욱 놀라운 장경관전의  
보존 비밀, 그것은 바로 ‘자연’이었다.



해인사 고려대장경판 및 제경판

완전하게 현존하는  
목판으로는 세계 유일무이한  
최고의 대장경판으로 진리와  
깨달음의 길을 가장 정확하게  
기록한 인류 지성의 위대한  
상징이며, 아시아 문화의  
자부심!

국보 제32호, 유네스코 지정  
세계기록유산 등재(2007년 6월)



해인사 장경판전

남쪽의 수다라장과 북쪽의  
법보전, 동쪽과 서쪽의  
동사간전과 서사간전으로  
어우러진 장경판전은 세계  
유일의 대장경판 보관용  
건물로 현재까지 팔만대장경을  
온전하게 보존 · 계승!

국보 제52호, 유네스코 지정  
세계문화유산 등재(1995년 12월)



바람소리와 함께 머물고 싶은 곳

가야산

조선8경의 하나로 주봉인 상왕봉(1,430m)을 중심으로  
툽날 같은 암봉인 두리봉, 남산, 비계산, 북두산 등 해발  
1,000m가 넘는 고봉들이 마치 병풍을 친듯 이어져  
있으며 남북으로 경상북도 성주군과 경상남도 함천군의  
경계를 이룬다.



해인사 CNN 선정

해인사는 신라시대에 그 도도한 화엄종의 정신적인  
기반을 확충하고 선양 한다는 기치 아래, 화엄십찰  
(華嚴十刹)의 하나로 세워진 가람이다.



홍류동 계곡

가야산 국립공원에서 해인사 입구까지 이르는 4km  
계곡으로 가을 단풍이 너무 붉어서 흐르는 물에 붉게  
투영되어 보인다하여 붙여진 이름이며 홍류동에는  
주요문화재인 농산정과 낙화담, 분옥폭포 등 19명소가  
있으며 특히 농산정 맞은편에는 최치원 선생의 친필이  
새겨져 있어 더욱 유명하다.



CNN 도 반한 그 곳, 합천팔경 중 제8경

황매산

영남의 소금강으로 불리며, 700~900m의  
고위평탄면 위에 높이 약 300m의 뾰족한 봉우리를  
엮어놓은 듯한 모습이다. 삼라만상을 전시해 놓은  
듯한 모산재(767m)의 바위산이 절경이며 그 밖에  
북서쪽 능선을 타고 펼쳐지는 황매평전의 철쭉 군락과  
무지개터, 황매산성의 순결바위, 국사당 등이 볼 만한  
곳으로 꼽힌다.



옛 서울로 떠나는 시간여행

합천영상테마파크

1920년대에서 1980년대를 배경으로 하는 국내 최고의  
특화된 시대물 오픈세트장으로 드라마 <각시탈>, <빛과  
그림자>, <서울 1945>, <에덴의 동쪽>, <경성스캔들>, <영화사나>, <태극기 휘날리며>, 뮤직비디오 등 67편의  
영화, 드라마가 촬영된 전국 최고의 촬영세트장이다.

